

'전주맛배달' 가맹점 본격 모집

'수수료 0%' 전주형 공공배달앱 내년 2월 도입 앞두고 4000여개 가맹점 확보 돌입

전주시가 내년 2월 전주형 공공배달앱 도입을 앞두고 가맹점 확보에 나선다. 이 배달앱은 중개수수료가 없어 그동안 민간 배달앱에 수수료료 때어난 가맹점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시는 전주형 공공배달앱 명칭을 '전주맛배달'로 정하고 전주맛배달 홈페이지(<http://jorder.kr>)를 통해 본격적인 가맹점 모집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공공배달앱 브랜드 명칭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과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전주맛배달'을 전주형 공공배달앱 명칭으로 최종 결정했다. '전주맛배달'은 전국 최고의 맛의 고장답게 '전주의 맛'을 배달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시는 전주지역 소재(완주군 혁신도시 일부포함) 배달 가능한 의식업체를 대상으로 4000여 개의 가맹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15일부터 전주맛배달 홈페이지를 열어 가입신청서(PG포함)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기로 했다. 오는 17일부터는 콜센터(1899-1010) 유선 상담과 찾아가는 가맹점 신청 접수도 할 예정이다.



전주시가 내년 2월 전주형 공공배달앱 도입을 앞두고 가맹점 확보에 나선다.

소상공인에게 소비자 마케팅을 위한 기법상품이 제공된다.

전주형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온라인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입했다. 민간 배달앱의 중개수수료는 6~12%이나 '전주맛배달'은 중개수수료가 0%이며 광고비나 가입비 등 별도의 추가금도 없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배달앱 구축 및 운영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를 공개모집해 중개수수료, 가입비, 광고비 제로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가동기로 했다. '전주맛배달' 가맹점이 되면 민간 배달앱과 달리 '전주맛배달' 앱 상에서 전주시상품권을 연동해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며페이백 10%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가맹점을 등록한

이와 함께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는 물론이고 전주시 공식 SNS, 버스앱 광고, 지역맘카페, 시내버스 랩핑광고, 지역 인플루언서 활동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가동기로 했다.

'전주맛배달' 가맹점이 되면 민간 배달앱과 달리 '전주맛배달' 앱 상에서 전주시상품권을 연동해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며페이백 10%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가맹점을 등록한

전주시, 전시컨벤션센터·호텔 건립 '착착'

이달 말까지 건립사업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의뢰 각종 인허가·기본·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후 2025년 완공 계획

전주종합경기장에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을 건립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전주시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전주컨벤션센터·호텔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이달 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제도'는 지역 신규 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지난 6월 종합경기장에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을 짓는 게 △시민들의 편익과 수요에 맞는지 △지방재정 투자사업으로 타당하지 △재원 조달은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게 맡겼다.

시는 조만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용역 결과를 받아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수혜도, 추진의지 등 정책적 타당성을 적극 피력한다는 복안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내년 3월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고 전주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이뤄지면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과 새로운 협약을 체결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시는 이후 각종 인허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밟아 오는

2025년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을 완공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전시컨벤션센터는 전시장 5000㎡, 대규모회의실(2000명 수용), 중소규모 회의실 10실과 200실 규모의 호텔을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1705억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시는 종합경기장에 전시장과 대규모 회의실 등을 갖춘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이 들어서면 지역 내 열악한 마이스 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이스(MICE) 산업은 기업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박람회전시회(Events & 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이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종합경기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계획에 따라 사람, 생태, 문화를 담은 시민의 숲을 조성하고, MICE 산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랜드마크와 성장거점을 만들 것"이라며 "혁신도시 입주기관의 대규모 국제회의와 전시수요를 충족하고 제3금융도시가 갖춰야 할 기반시설인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963년 도민과 시민의 성금으로 지어진 전주종합경기장에 △예술체험을 할 수 있는 예술의 숲 △생태놀이터로 꾸며지는 놀이의 숲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의 특색을 살린 미식의 숲 △국제 규모 전시컨벤션센터가 들어서는 MICE의 숲 △정원의 숲 등 다섯 가지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시컨벤션센터·호텔 건립 조감도.

전주시,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자인병원' 지정

총 138병상 재택치료 환자 위해 운영

전주시는 대자인병원이 재택치료 환자 치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대자인병원은 이날부터 재택치료 환자를 위해 중증 38병상, 준중증 28병상, 중등증 72병상 등 총 138병상을 운영하게 된다.

그간 재택치료를 하다 경증 환자가 발생하면 멀리 남원의료원까지 가야했지만 대자인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됨에 따라 전주에서 재택치료 도중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주지역 코로나

19 재택치료 대상자는 150명을 넘어선 상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대자인병원을 방문해 재택치료자 전담 병상을 둘러보고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향후 시는 재택치료자를 위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개소하고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지역의사회와 적극 협력해 재택치료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전담병원 추가 지정하고 재택치료전담반을 확대하는 등 환자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 출근을 하지 말고 선제검사를 받아주시고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대중교통 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수상

시내버스 정거권 제도를 운영하고 친환경 수소버스를 확대하는 등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력해온 전주시가 대중교통 정책을 우수하게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받았다.

시는 15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 '2021년도 대중교통 시책평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대중교통 시책평가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중교통계획 및 시책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161개 시·군을 인구규모와 도시철도 운행 유무에 따

라 5개 그룹(A~E)으로 나뉘어 2년마다 평가가 이뤄진다.

내·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평가단은 지난 7월부터 서면평가와 현지실사,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거쳐 시내버스 정거권을 운영하고 친환경 수소버스를 도입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펼친 전주시를 C그룹 2위(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대표적으로 시는 시내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학생과 직장인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정거권을 도입, 운영 중에 있다. 또 '달리는 공기청정기'라 불리며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친환경 수소버스 15대를 보급했다. /김윤상 기자

특히 시는 △대중교통수단 및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대중교통 서비스 고급화 △대중교통 이용편의성 △대중교통 우수시책 △주민만족도 등 다양한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시는 민선6기부터 지속가능한 생태교통 도시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을 펼쳐온 결과 2015년 2위, 2017·2019년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